



초 | 등 | 부 | 터 EBS



만점왕

예습, 복습, 숙제까지 해결되는 교과서 완전 학습서



3-1
국어

인터넷·모바일·TV
무로 강의 제공





산나게
공차기 하고 들어와
보석 같은 얼음을
유리컵에 담아

쭉쭉
빨아 먹고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고
아유, 시원해라!

얼음을 무엇 같다고 표현했나요? 얼음을 먹는 소리를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요?
투명하고 시원한 얼음을 빨아 먹고 깨물어 먹는 느낌이 실감 나게 느껴지지요?

이제, 1단원에서는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
며 작품을 읽어볼 거예요.

1 재미가 툭툭툭



단원 학습 목표

25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시나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2.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 이야기의 배경, 인물, 사건을 탐구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면담을 해 보고,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1차	단원 열기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
	교과서 내용 학습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기 / 「소나기」 / 「공 튀는 소리」	✓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바삭바삭 갈매기」	✓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으악, 도깨비다!」	✓
4차	교과서 내용 학습	「강아지풀」 / 「아기 고래」 / 국어 활동 학습하기	✓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서술형 수행 평가 대비 학습하기	✓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문제 학습하며 학교 숙제 해결하기	✓
5차	단원 정리 학습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한 단원 학습 상황 파악하기	✓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 표를 하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

국어 32~33쪽 내용

학습 목표 ▶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기

국어 32~33쪽

- 그림의 특징: 창밖의 봄꽃을 보며
엄마와 아이들이 봄에 대해 대화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 바르게 읽기

[노라게]	[노라게]
(○)	(×)

■ 감각적 표현이란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1

진희야, 봄이
왔나 봐. 햇살이
제법 따스해졌어.

엄마, 정말이네요.
개나리가 노랗게 불을
켜고, 진달래가 분홍
빛으로 물들었어요.

2

봄이 오는
소리는 폭! 폭! 폭!
팡! 팡! 팡!

응? 그게
무슨 말이야?

3

개나리는 “폭!”
하고 꽃이 피어나고,
진달래는 “팡!” 하고
꽃이 피어난다는
말씀.

와! 우리
진수가 봄이 오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말했네.

4

응. 봄에 꽃이 피는
모습을 귀에 들리듯이
말했잖아. 그런 표현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

네?
감각적이에요?

01 진희는 봄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선으로 이으시오.

(1) 개나리 •

• ①

노랗게
불을 켜다.

(2) 진달래 •

• ②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02 진수는 봄이 오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찾 아 쓰시오.

()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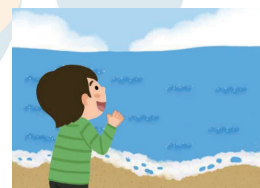
0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진희와 진수처럼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
현한 것을 (이)라고 한다.

- ① 동화적 표현 ② 감각적 표현
③ 관용적 표현 ④ 흥내 내는 말
⑤ 자유로운 표현

사술형

04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쓰시오.



도움말 파도치는 소리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소나기

학습 목표 ▶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잘 익은 콩을 쏟는 소리=소나기 소리

★ 바르게 쓰기

쏟고	쏟고
(○)	(×)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한 부분

소나기 **그치고** 나면

하늘빛이 더 맑다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오순택
- 글의 특징: 소나기 내리는 소리를 '잘 익은 콩을 쏟는 소리'나 '실로폰 소리'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 낱말 사전

쏟고 액체나 물질을 그것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예 팔을 휘두르다 책상에 우유를 쏟고 말았습니다.

그치고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고.

예 동생은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05 ㉠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준서: 굵은 빗방울의 모양이 콩처럼 동글동글하기 때문이야.

민주: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와 콩을 쏟는 소리가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

중요
07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고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의 차이점을 바르게 말한 것에 ○표를 하시오.

- (1) '또로록'을 넣고 읽을 때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난다. ()
- (2) '또로록'을 빼고 읽을 때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난다. ()
- (3) '또로록'을 넣고 읽거나 빼고 읽어도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별 차이가 없다. ()

06 '또로록'은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

- ① 콩이 굴러가는 소리
- ② 문을 두드리는 소리
- ③ 눈물을 흘리는 소리
- ④ 소나기 내리는 소리
- ⑤ 실로폰을 치는 소리

서술형
08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도움말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고, 그 느낌을 써 봅니다.

공 튀는 소리

학습 목표 ▶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국어 38~39쪽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신형건
- 글의 특징: 앓아누워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골목에서 들려오는 공 튀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날말 사전

앓아누워 아파서 자리에 누워.

예 어머니께서는 감기에 걸려 앓아누워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까무룩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

예 책을 읽다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맥박 심장 박동에 따라 생기는 혈관의 움직임.

예 달리기를 하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틀째 **앓아누워**

학교에 못 갔는데, 누가 벌써

학교 갔다 돌아왔는지

골목에서 **공 튀는 소리** 들린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

탕탕-

땅바닥을 두들기고

탕탕탕-

담벼락을 두들기고

탕탕탕탕-

꼭 닫힌 창문을 두들기며

골목 가득 울리는

소리

내 방 안까지 들어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 다닌다.

방 안에서 공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함.

까무룩 또 잠들려는 나를

뒤흔들어 깨우고는, 내 몸속까지

공 소리에 잠이 깬.

튀어 들어와 탕탕탕-

내 **맥박**을 두들긴다.

공 튀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나가 놀고 싶어 심장이 두근뼌.

★ 바르게 읽기

[아라누워]

(○)

[알하누워]

(×)

09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병원에서 맥박을 재고 있다.
- ② 공 튀기는 연습을 하고 있다.
- ③ 친구 집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 ④ 골목에서 공을 튀기며 놀고 있다.
- ⑤ 앓아누워 학교에 못가고 잠에 취해 있다.

10 공이 튀는 소리를 표현한 말에 ○표를 하시오.

- | | |
|-------------------|-----|
| (1) 탕탕탕 | () |
| (2) 까무룩 | () |
| (3)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 () |

중요
11

이 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바르게 말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공 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②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③ 뽕뽕한 공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하다.
- ④ 아픈 아이의 앓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⑤ 공이 튕겨 다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12 말하는 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새 공을 사고 싶은 마음
- ②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 ③ 아파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
- ④ 공 튀는 소리가 시끄러워 듣기 싫은 마음
- ⑤ 아파서 누워 있지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



바삭바삭 갈매기

학습 목표 ▶ 이야기를 읽고 감각적 표현 알기

국어 40~49쪽

- 글쓴이: 전민걸
- 글의 종류: 이야기(동화)

- 글의 특징: 사람들이 준 '바삭바삭'의 맛을 잊지 못한 갈매기가 '바삭바삭'을 찾아 떠나는 내용으로,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생생하게 표현한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글입니다.

중심 내용 나는 큰 바위섬에 사는 갈매기로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1 나는 갈매기야. / 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큰 배가 들어와 '바삭바삭'을 먹기 전까지는

중심 내용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고, 배 뒤에서 아이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뿌우우우웅!”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작 뽕작 띠리리라라.”

노랫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

큰 배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바삭! 바삭!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깨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툭툭! 바스락!

★ 바르게 쓰기

짹조름하고 (○)	짹조름하고 (×)
--------------	--------------

어, 이게 뭐지?

쿵쿵 쪼아 봤어.

★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

“까아악!” / 이…… 이 맛은 뭐지?

⑦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바삭! 바삭!

13 큰 바위섬에 살고 있는 '나'의 평소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 ②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 ③ 큰 배가 다가오면 멀리 도망쳐 날아간다.
- ④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떠난다.
- 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는다.

중요 15

아이들이 던진 '무언가'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에 ○표를 하시오.

- (1) 까아악! ()
- (2) 툭툭! 바스락! ()
- (3)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

16 ㉠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

- ① 무언가를 쪼는 소리
- ② 무언가에서 나는 냄새
- ③ 무언가를 먹고 난 느낌
- ④ 큰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
- ⑤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은 느낌

서술형

14

큰 배에서 나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쓰시오.

(1) 감각적 표현: _____

(2) 표현한 것: _____

도움말 큰 배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중심 내용 우리는 '바삭바삭'을 더 먹고 싶어서 사람들 마을까지 큰 배를 따라갔고,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3 “더 먹고 싶어!”

‘바삭바삭’을 먹은 갈매기들의 마음
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
에 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

고등어 떼를 잡을 때와는 달랐어.

한 개라도 더 먹기 위해 우리는 싸우듯 날았어.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마을이었어.

장소의 변화

큰 배에서는 더 이상 바삭바삭이 나오지 않았지.

“짹조름하고 고소해!”

‘바삭바삭’의 맛

“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 물경하지도 않아!”

‘바삭바삭’과 물고기의 냄새와 식감 비교

“끼룩! 더 먹고 싶어!”

우리는 바삭바삭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

날말 사전

비린내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

물경하지도 너무 익거나 끓아서 물크러질 정도로 물렁하지도.

예 단감은 홍시처럼 물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바삭바삭을 맛볼 수 없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앞다투어 깨물어 보았고, 운이
‘바삭바삭’과 비슷해 보이는 것
 좋으면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어.

때로는 **부룻가**에 모여 소리쳤어.

“까악! 깉! 끼룩! 깉!”

갈매기 울음 소리

사람들은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 같은 것만 던져 줬어.

그건 끈적거리고 비린내만 나지, 맛이 없었어.

생선 대가리

자꾸만 화가 났어.

“고소하고 짹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 바르게 읽기

[부두개]	[부툰개]
(○)	(×)

부스러기 잘게 부스러진 물건.

예 책상 위가 과자 부스러기로 지저분합니다.

부룻가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근처.

17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 ② ‘바삭바삭’을 더 먹고 싶어서
- ③ 사람들 마을을 구경하고 싶어서
- ④ 배에서 나는 소리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 ⑤ 큰 배를 따라가면 고등어 떼를 찾을 수 있어서

18 이 글에서 ‘물고기’와 ‘바삭바삭’을 표현한 말을

보기 에서 모두 찾아 기호로 쓰시오.

보기

- | | | |
|--------|---------|---------|
| ㉠ 고소함 | ㉡ 물경함 | ㉢ 비린내 남 |
| ㉣ 짹조름함 | ㉤ 바삭바삭함 | |

(1) 물고기: ()

(2) 바삭바삭: ()

19 ‘바삭바삭’을 먹고 싶은 갈매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다니까? ()

- ① 화가 나서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 ② 큰 배에서 ‘바삭바삭’을 찾아냈다.
- ③ 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 ④ 바위섬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 ⑤ 사람들이 던져 주는 생선 대가리를 맛있게 먹었다.

중요

20

사람들이 던져 주는 생선 대가리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 쓰시오.

()



중심 내용 마을 깊숙이 들어가 만난 큰 개가 '바삭바삭'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4 달이 밝은 어느 날 밤에 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깊숙이 들어갔다. / 어디선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깊숙이 들어간 까닭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

깊은 골목 안쪽에서 크고 살찐 개를 만났다.

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꽤나 무거워 보였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고 이렇게 생긴 거 못 봤어? 바삭바삭 소리도 나는데…….”

그 개는 별로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

큰 개가 사납게 짖어 댔지만 결국 바삭바삭이 있는 곳을 알게 해 줬지.

나는 정말 행복했어.

바삭바삭을 꼭 물고 달렸어. / 달리고 달렸어.

중심 내용 나는 골목에서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친구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고양이에게 놀라 오랜만에 멀리까지 날았습니다.

5 골목 모퉁이를 돌아 바삭바삭을 물어뜯으려는데, “바삭! 바삭!” / 소리가 들렸어.

어? 애들은 누구지? / 어쩌서 이런 곳에…….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

애네 날 수는 있을까? / 그때였어!

“야아아아아옹!” / 난 깜짝 놀라서 튀어 올랐어.

☆ 고양이 울음 소리
㉠ 웬일인지 잘 날 수가 없었어.

★ 바르게 쓰기

웬일인지	웬일인지
(○)	(×)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어.

쿵쿵쿵쿵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게 되는 것 같았어.

더 숨이 가빠 왔어.

나는 날개를 젓고 또 저었어.

겨우 날아오른 곳은 어느 빨간 지붕 위였지.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

“뿌우우우웅.”

큰 배의 뱃고동 소리
친구들은 여전히 큰 배 주위에 몰려 있었어.

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

부둣가의 비릿한 냄새도 사람들의 복잡한 냄새도 나지 않았지. / 오랜만에 멀리 날았어.

21 갈매기가 '바삭바삭'이 있는 곳을 알게 해 준 이는 누구입니까? ()

- ① 크고 살찐 개
- ② 마을에서 만난 아이
- ③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 ④ '바삭바삭'을 먹고 있던 친구들
- 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중요
22 골목 모퉁이를 돌아볼 때 만난 친구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털이 빠져 있었다.
- ② 똥이 묻어 있었다.
- ③ 깨끗하고 날씬해 보였다.
- ④ '바삭바삭'을 먹고 있었다.
- ⑤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23 ㉠의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숨이 가빠서 ()
- (2) 깜짝 놀라서 ()
- (3) 목이 말라서 ()
- (4) '바삭바삭'을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

서술형
24 「바삭바삭 갈매기」를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쓰시오.

도움말 재미있거나 슬퍼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거나 감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부분들을 떠올려 봅시다.

오악, 도깨비다!

학습 목표 ▶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국어 50~61쪽

- 글의 종류: 동화
- 글쓴이: 손정원

중심 내용 깊은 산골의 장승 마을에서 멧쟁이 장승과 빠드렁니 장승이 다투자 통눈이 장승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 기차 타고 쿵쿵, 버스 타고 툼툼, 다시 타박타박 **반나절**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지요.

지루한 한낮, 멧쟁이 장승이 빠드렁니 장승을 놀렸어요.

“하하, 넌 이가 **빠드러져** 수박 먹기 좋겠다.”

빠드렁니가 눈을 **흘기면서** 말하였어요.

“그럼 수박 좀 가져와 봐. 이 ‘**잘난 척 왕자**’야!”
멧쟁이 장승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낱말 사전

반나절 한나절의 반.

빠드러져 끝이 밖으로 벌어져 나와.

- 글의 특징: 깊은 산골의 장승 마을에 살고 있는 장승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한 뒤 마을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낮잠을 자던 통눈이 장승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휴, 시끄러워. 낮잠 좀 자게 조용히 해.”

중심 내용 밤이 되어 숨바꼭질을 하다가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꼭꼭 숨어 있던 멧쟁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2 하지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나요.
장승 친구들의 마음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날아서 훨훨, 헤엄치며 침병침병.

그렇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흘기면서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면서.

신바람[신빠람] 신이 나서 우쭐우쭐하여지는 기운.

25 멧쟁이 장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이가 고르다.
- ② 잘난 척을 한다.
- ③ 수박을 좋아한다.
- ④ 주먹코를 가졌다.
- ⑤ 약한 친구를 잘 돕는다.

26 통눈이 장승이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밤이 되자 신바람이 나서
- ② 멧쟁이 장승이 잘난 척하여서
- ③ 빠드렁니 장승이 눈을 흘겨서
- ④ 낮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하여서
- ⑤ 눈이 튀어나왔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중요
27 장승 친구들은 왜 밤이 되면 신바람이 납니까? ()

- ① 실컷 잘 수 있어서
- ② 버스를 탈 수 있어서
- ③ 밤이 되면 시원해져서
- ④ 날이 밝으면 눈이 부셔서
- ⑤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서술형

28 장승 친구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 글 **2**에서 찾아 쓰시오.

도움말 장승 친구들이 밤이 되어 마음껏 뛰어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 **2**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밤이 되어 마음껏 뛰어노는 장승 친구들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야, 이빨 보인다.” / “아이고, 넌 배꼽 보여.”

“**주먹코**도 보인다!”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아요**.

장승 친구들은 날이 밝는 줄도 몰랐어요.

“꼬끼오!”

멀리서 새벽닭 소리가 들려오자 빠드렁니가 소리쳤
 어요.

“벌써 아침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
날이 밝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을 어겨서
 못 하게 돼!”

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멧쟁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걸

날말 사전

주먹코 뭉툭하고 크게 생긴 코. 또는 그런 코를 가진 사람.

수놓아요 색실로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어요.

까요?

멧쟁이는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그만 날이
 밝은 줄도 모른 거예요.

멧쟁이는 이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밤마다 놀러 왔지만 멧쟁이는 조금도 즐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겁지 않았어요.

빠드렁니가 ‘잘난 척 왕자’라고 약을 올려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어느 날, 멧쟁이는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멧쟁이의 얼굴은 곰팡이도 슬고 조금씩 썩어 가고
멧쟁이가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까닭
 있었거든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정말 이상해졌잖아!”

멧쟁이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한숨 근심이나 설움이 있을 때, 또는 긴장하였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

29 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무엇을 하
 며 놀았는지 쓰시오.

()

31 물에 비친 멧쟁이의 얼굴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썩어 가고 있었다.
- ② 이가 빠드러졌다.
- ③ 곰팡이가 슬었다.
- ④ 얼굴이 커져 있었다.
- ⑤ 울통불통한 흑이 생겨 있었다.



30 중요 멧쟁이가 움직일 수 없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놀이에서 술래였기 때문에
- ② 놀다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 ③ 정신없이 달리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 ④ 빠드렁니 장승이 약을 올렸기 때문에
- ⑤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날이 밝은
 줄 몰랐기 때문에

32 멧쟁이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

- ① 슬픈 마음 ② 기쁜 마음
- ③ 행복한 마음 ④ 뿌듯한 마음
- ⑤ 질투하는 마음

중심 내용 며칠 뒤, 멧쟁이가 사라지자 고민 끝에 장승 친구들이 모두 함께 멧쟁이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3 며칠이 지난 뒤, 멧쟁이한테 놀러 갔던 짱구가 **혈레벌떡** 달려와서 말했어요.

“없어졌어. 멧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지?”

모두들 놀랐어요.
멧쟁이가 사라져서
짱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웅기**를 가져가더니 멧쟁이도 데려간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도 멧쟁이처럼 잡혀 갈 거야.”
사람들에게 잡혀갈까 봐

통눈이가 주먹을 **볼끈** 쥐고 대답했어요.

날말 사전

혈레벌떡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

예 종소리를 듣고 혈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웅기 웅기그릇,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예 그 할아버지는 평생 웅기를 구우며 사신 분입니다.

“그럼 멧쟁이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말이야?”

“없어진 멧쟁이를 어디서 찾겠니? 그러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해?”

결국 장승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도망치자는 의견과 멧쟁이 장승을 구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서

“여긴 **돌아가신** 웅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우리 마 장승 마을은
을이야.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 벌써 잊 어버렸어?”

모두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웅기 할아버지와 약속이 생각나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장승 친구들은 밤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서 멧쟁이를 찾아보자!”

장승 친구들이 내린 결정

볼끈 주먹에 힘을 주어 꼭 쥐는 모양.

예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볼끈 쥐었습니다.

돌아가신[도라가신] 생명이 없어지시거나 끊어지신.

예 오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삿날입니다.

33 글 3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장승 친구들이 멧쟁이를 놀렸다.
- ② 멧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 ③ 멧쟁이가 장승 친구들을 찾아왔다.
- ④ 웅기 할아버지가 멧쟁이를 꾸짖었다.
- ⑤ 사람들이 장승 친구들을 보고 도망갔다.

35 장승 친구들은 누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멧쟁이를 찾아보기로 하였는지 쓰시오.

()

34 장승 친구들이 도망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중요
36 다음은 각각 어떤 인물의 특징이겠는지 인물의 이름을 **보기** 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짱구 ㉡ 통눈이 ㉢ 멧쟁이

- (1) 멧을 내기 좋아한다. ()
- (2) 눈이 툭 튀어나왔다. ()
- (3) 뒤통수가 쑥 튀어나왔다. ()



중심 내용 장승 친구들은 멧쟁이를 신고 가는 도둑들을 놀래 주어 멧쟁이를 구하고 마을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4 앞장서던 빠드렁니가 외쳤어요.

“저기다!”

자동차 불빛을 따라가 보니, **트럭**에 실려 가는 멧쟁이가 보였어요.

장승 친구들은 옹기랑 멧쟁이를 신고 가는 도둑들을 장승 친구들이 멧쟁이를 구하기 위하여 낸 피을 놀래 주기로 했어요.

크아악!

가르르륵

“으악, 도깨비다!”

도둑들은 **도깨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너무 놀라 도망쳤어요.

장승 친구들은 도둑들을 **몰리치고** 멧쟁이를 구해 냈

장승 친구들이 한 일

날말 사전

앞장서던[압장서던] 무리의 맨 앞에 서던.

예 대청소를 하자며 앞장서던 동생은 놀기만 하였습니다.

트럭 화물 자동차.

예 우리의 이삿짐이 트럭에 모두 실렸습니다.

어요.

빠드렁니가 말했어요.

“멧쟁이야, 놀렸던 것 미안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렇게 널 찾고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멧쟁이도 웃으며 말했지요.

“고마워, 애들아.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 나 좀 꼬집어 봐.”

멧쟁이를 구하고 마을을 지키게 된 장승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장승 친구들의 기쁜 마음을 알 수 있음.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로 돌아갔지요. 오늘 밤에도 장승 마을에서는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예 뿔 달린 도깨비가 춤을 추었습니다.

몰리치고 적이나 잡귀 따위를 쳐서 물러가게 하고.

예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몰리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37 도둑들에게 잡혀갔을 때 멧쟁이 장승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

- ① 신났을 것이다.
- ② 귀찮았을 것이다.
- ③ 미안하였을 것이다.
- ④ 두렵고 슬펐을 것이다.
- ⑤ 설레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38 장승 친구들은 어떻게 멧쟁이 장승을 구했습니까? ()

- ① 멧쟁이를 들고 도망갔다.
- ② 트럭을 고장 나게 하였다.
- ③ 나란히 서서 길을 막았다.
- ④ 도깨비처럼 소리를 질렀다.
- ⑤ 트럭에 실린 옹기를 모두 깨뜨렸다.

중요

39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희선: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원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멧쟁이 장승이 안타까웠어.

수철: 장승 친구들은 멧쟁이를 구하고 마을도 지키게 되었어.

()

서술형

40 장승 친구들이 멧쟁이를 구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는지 쓰시오.

도움말 빠드렁니가 한 말에서 장승 친구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풀

학습 목표 ▶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

국어 62~63쪽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강현호
- 글의 특징: 풀숲에서 본 강아지풀이 마치 강아지처럼 나를 따라올 것 같아 자꾸만 숲길을 뒤돌아본다는 내용의 시로 강아지풀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날말 사전

복슬복슬한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예 우리집에는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팔이나 꼬리 따위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

예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1 풀숲에서
강아지풀을 만난 곳
⑦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

2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강아지풀의 꼬리를 비유한 말
꼬리를 **살랑살랑**

3 ㉠ **요요요**

요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 바르게 읽기

[솜길]

(○)

[솜길]

(×)

4 우리 집까지

따라올 것 같아

강아지풀이 ★
자꾸만 숲길을 뒤돌아보았다.



▲ 강아지풀

41 ㉠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

- ① 아기
- ② 동생
- ③ 강아지
- ④ 해바라기
- ⑤ 강아지풀

43 다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 | | | | | |
|-----|-------------|---|-----|------|
| (1) | 꼬리의 생김새 | • | • ① | 요요요요 |
| (2) | 꼬리를 흔드는 모양 | • | • ② | 살랑살랑 |
| (3) |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 | • | • ③ | 복슬복슬 |

42 1~4에서 감각적 표현이 특히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모두 찾아 ○표를 하시오.

- | | |
|-----------|-----------|
| (1) 1 () | (2) 2 () |
| (3) 3 () | (4) 4 () |

44 ㉠은 어떤 느낌으로 낭송하는 것이 좋습니까? ()

- ①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팔을 흔들며
- ② 강아지를 쓰다듬는 듯한 몸짓을 하며
- ③ 강아지를 부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며
- ④ 강아지가 뛰어가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 ⑤ 강아지가 우는 것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기 고래

학습 목표 ▶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

국어 64쪽

뒹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동바동

대왕 오징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울지 마 울지 마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큰

㉠ 울음을 내뿜는
고래와 닮은 점
내 동생

『식구 모두 시켜렇게
먹물을 뒤집어췌을 테니까
앞이 캄캄했을 테니까』

『』: 대왕 오징어였으면 큰일 날 뻔한 까닭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김룡
- 글의 특징: 뒹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동대며 울음을 내뿜는 동생을 아기 고래에 빗대어 표현한 시입니다.

아기 고래다!
'동생'을 비유한 말

45 제멋대로 되지 않아 몸을 비틀면서 떼쓰는 모습을 나타낸 낱말을 찾아 쓰시오.

()

47 ㉠의 모습을 가장 실감 나게 표현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우진: 우헤헤, 우헤헤!
서희: 우아앙! 우아앙!
승준: 호이! 호이!

()

46 내 동생을 아기 고래라고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 ① 아기 고래처럼 동생이 수영을 잘해서
- ② 아기 고래가 동생이 좋아하는 동물이어서
- ③ 아기 고래처럼 동생도 캄캄한 밤을 무서워해서
- ④ 아기 고래가 물을 뿜듯이 동생도 울음을 내뿜어서
- ⑤ 아기 고래가 엄마 고래를 따라다니듯이 동생도 엄마를 따라다니어서

중요
48 이 시를 읽고 나서 떠오르는 장면과 가장 비슷한 경험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 ㉠ 엄마 대신 내가 직접 동생에게 밥을 차려 주었던 일
- ㉡ 동생과 함께 장난치다가 온 집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일
- ㉢ 동생이 장난감을 사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앉아 울며 떼췌던 일

()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며 '-장이'와 '-쟁이' 구별하기

■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며 그림 살펴보기



고집쟁이



개구쟁이



대장장이



옹기장이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이고, '-쟁이'는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며, '옹기장이'는 '옹기그릇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즉 기술자에게는 이처럼 '-장이'를 붙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업을 뜻하는 말이 아닌 '고집쟁이', '개구쟁이'는 '-쟁이'를 붙여 써야 합니다.

■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가운데에서 바른 표기 고르기

옹기를 만드는 사람을 (옹기장이), 옹기쟁이)라고 해.

우리 이모는 옷을 잘 입는 (멋장이, 멋쟁이)야.

벽에 종이를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도배장이, 도배쟁이)라고 해.

• 활동 내용: 헛갈리기 쉬운 표기인 '-장이'와 '-쟁이'를 어떻게 붙이는지 알고, 바른 표기를 고르는 활동입니다.

'-쟁이'를 붙인 낱말의 예	멋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개구쟁이 심술쟁이
	미장이 땀장이 대장장이 옹기장이 간판장이 도배장이 양복장이

확인 문제

※ 다음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표기한 것에 모두 ○표를 하시오.

1. 내 동생은 욕심장이입니다. ()

2. 우리 아빠는 멋쟁이입니다. ()

3. 할아버지는 직접 양복을 만드는 양복쟁이입니다. ()

4. 우리 마을에는 멋진 옹기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가 있습니다. ()

정답 2. ○ 4. ○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수행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❶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바삭바삭을 물어뜯으려는데,
“바삭! 바삭!” / 소리가 들렸어.
어? 애들은 누구지? / 어째서 이런 곳에…….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 / 애네 날 수는 있을까?
그때였어!
“야아아아아옹!”
난 깜짝 놀라서 튀어 올랐어.
웬일인지 잘 날 수가 없었어.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어.
쿵쿵쿵쿵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게 되는 것 같았어.
더 숨이 가빠 왔어.
나는 날개를 젓고 또 저었어.
겨우 날아오른 곳은 어느 빨간 지붕 위였지.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
“뿌우우우웅.”
친구들은 여전히 큰 배 주위에 몰려 있었어.
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
부듯가의 비릿한 냄새도 사람들의 복잡한 냄새도 나지 않았지.
오랜만에 멀리 날았어.

1 귀로 들은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말을 두 가지만 찾아 쓰시오.

2 1에서 답한 것 외에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한 가지만 찾고, 그 표현이 감각적이라고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1) 감각적 표현: _____

(2) 감각적이라고 생각한 까닭: _____

3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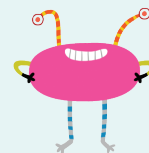
🔍 문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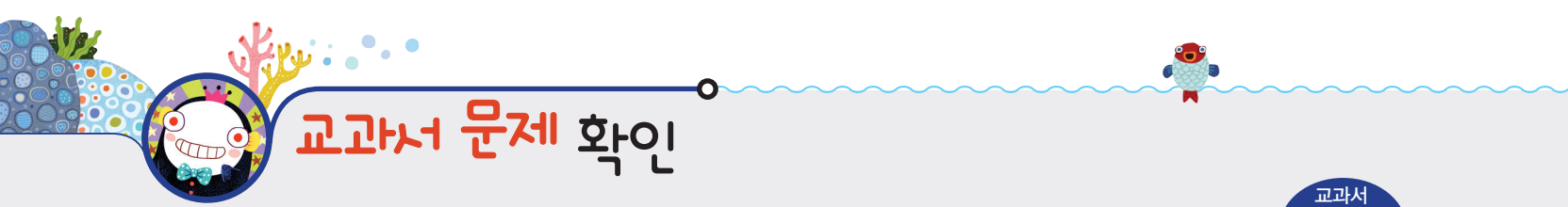
이야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고,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문제입니다.

🔍 해결 전략

1 단계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 비유적 표현 등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며 이야기 읽기
2 단계	글을 읽고 감각적 표현을 찾고, 그 표현이 왜 감각적 인지 생각하기
3 단계	글의 내용이나 표현,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 주시는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도 book ④ 해설책에서
꼭 확인하세요!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37쪽

「소나기」

● 소나기 내리는 소리를 콩을 쏟는 소리, 실로폰 소리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

- “누가 잘 익은 콩을 / 저렇게 쏟고 있나”라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와 콩을 쏟는 소리가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고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집니다.
- “소나기 그치고 나면 / 하늘빛이 더 맑다”라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소나기」를 다시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봅시다.
예) 빗방울을 콩이라고 표현한 점이 재미있었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실로폰 소리가 난다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었어.

교과서
39쪽

「공 튀는 소리」

● 앓아누워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골목에서 들려오는 공 튀는 소리를 듣고,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시

-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이틀째 앓아누워 학교에 못 가고 잠에 취해 있습니다.
- 공이 튀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 탕탕 - 땡바닥을 두들기고 탕탕탕 - 담벼락을 두들기고 탕탕탕탕 - 짹 닫힌 창문을 두들긴다고 했습니다.
- 공이 내 맥박을 두들긴다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잠들려다가 공 튀는 소리를 듣고 깼고, 공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과서
48~49쪽

「바삭바삭 갈매기」

● 사람들이 준 ‘바삭바삭’의 맛을 잊지 못한 갈매기가 ‘바삭바삭’을 찾아 떠나는 내용으로,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생생하게 표현한 이야기

-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 ‘나’는 ‘바삭바삭’을 물어뜯으려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예)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친구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고양이를 만난 ‘내’가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고, 쿵광쿵광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바삭바삭 갈매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봅시다.

예) 툭툭! 바스락!

쿵광쿵광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게 되는 것 같았어.

뿌우우우웅!

쿵작 뽕작 띠리리라라.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와그작. 바삭! 바삭!

까악! 깽! 끼룩! 깽!

끈적거리고 비린내만 나지 맛이 없었어.

고소하고 짹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아아아아아웅!

비릿한 냄새

- 만일 ‘내’가 계속 ‘바삭바삭’을 찾아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예) 더러운 고양이나 큰 개들과 ‘바삭바삭’을 놓고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바삭바삭’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계속 ‘바삭바삭’을 찾다가 좋지 않은 곳을 구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바삭바삭 갈매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주인공 갈매기가 과자를 먹고 감탄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내가 무심코 준 과자 때문에 동물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갈매기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 때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

「강아지풀」

풀숲에서 본 강아지풀을 마치 강아지처럼 재미있게 표현한 시

- 강아지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 귀여운 강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숨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고 했습니다.

- 강아지풀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나요?

예) 요요요 / 요요요요



단원 정리 학습

핵심 1 시나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1 감각적 표현

-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 사물을 다른 것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소나기」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또로록’이라는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고, 빗소리를 ‘실로폰 소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빗소리가 들리듯이 생생하게 표현했어.



2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

- 시나 이야기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 읽는 이가 재미있고 실감 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바삭바삭 갈매기」

쿵쿵 쪼아 봤어.
쫘뽀뽀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
“까아악!”
이…… 이 맛은 뭐지?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
과 함께 빨려 드는 느낌이었어.

과자의 냄새와 갈매기가 과자를 먹은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 글을 읽으면 내가 과자를 먹는 것처럼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껴져.



핵심 2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 이야기의 배경, 인물, 사건을 탐구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면담을 해 보고,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01

()

- ① 슬프게
- ② 신나게
- ③ 생생하게
- ④ 차분하게
- ⑤ 간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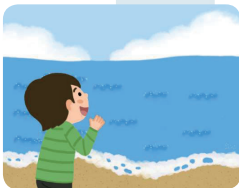
보기

(1)



()

(2)



()

(3)



()

()

- ① 북소리
- ② 나팔 소리
- ③ 실로폰 소리
- ④ 콩 쏘는 소리
- ⑤ 문 두드리는 소리

서술형

05 ㄱ을 넣고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쓰시오.

1. 재미가 툭툭툭 25



[06~1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틀째 앓아누워
학교에 못 갔는데, 누가 벌써
학교 갔다 돌아왔는지
골목에서 공 튀는 소리 들린다.

탕탕-
땅바닥을 두들기고
탕탕탕-
담벼락을 두들기고
탕탕탕탕-
꼭 닫힌 창문을 두들기며
골목 가득 울리는
소리

㉠ 내 방 안까지 들어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 다닌다.

까무룩 또 잠들려는 나를
뒤흔들어 깨우고는, 내 몸속까지
튀어 들어와 탕탕탕-
내 맥박을 두들긴다.

06 말하는 이가 학교에 가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앓아누워서
- ② 이사를 가서
- ③ 늦잠을 자서
- ④ 여행을 가서
- ⑤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07 골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

- ① 공 튀는 소리
- ② 두부 파는 소리
- ③ ‘나’를 부르는 소리
- ④ 아이들의 노랫소리
- ⑤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

08 ㉡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미정: 공이 창문을 깨고 말하는 이가 자고 있는
방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이야.
상원: 말하는 이가 아프지만 놀고 싶은 마음에
공을 꺼내서 방 안에서 튕겼기 때문이야.
준우: 창문 밖에서 공 튀는 소리가 방 안에 있는
말하는 이의 귀에까지 들리기 때문이야.

()



09 이 시는 무엇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까?
()

- ① 몸이 아픈 느낌
- ② 잠을 자고 있는 모습
- ③ 공 튀는 소리와 모습
- ④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
- ⑤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모습

10 이 시를 읽으면 말하는 이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파서 누워있지만 이/가
잘 느껴집니다.

()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뿌우우우웅!”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작 뽕작 띠리리라라.”

노랫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뽕뽕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

큰 배 뒤편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와그작.

바삭! 바삭!

툭툭! 바스락!

어, 이게 뭐지?

콧콧 쪼아 봤어.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

“까아악!” / 이…… 이 맛은 뭐지?

㉠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 드는 느낌이었어.

바삭! 바삭! / “더 먹고 싶어!”

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에 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

고등어 떼를 잡을 때와는 달랐어.

한 개라도 더 먹기 위해 우리는 싸우듯 날았어.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마을이었어.

큰 배에서는 더 이상 바삭바삭이 나오지 않았지.

“짹조름하고 고소해!”

“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 물경하지도 않아!”

“끼룩! 더 먹고 싶어!”

11

다음은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갈매기들은 아이들이 던진 ‘㉠’의 맛에 반해 큰 배를 따라 ㉡까지 갔습니다.

(1) ㉠: ()

(2) ㉡: ()

중요
12

다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을 찾아 쓰시오.

(1) 큰 배에서 나는 노랫소리: _____

(2) 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 _____

13

㉠은 무엇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① 늘 먹어본 익숙한 느낌
- ② 맛이 이상해서 놀란 느낌
- ③ 너무 맛있어서 황홀한 느낌
- ④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느낌
- ⑤ 너무 맛없어서 기분이 나쁜 느낌

14

갈매기들이 배에 바짝 붙어서 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물고기들을 쉽게 잡기 위해서
- ② 배에서 나는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서
- ③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 ④ 배를 따라 바위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 ⑤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

15

이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현서: 갈매기는 당연히 물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성민: 사람들이 무심코 던져 준 과자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 받을 수도 있어.

가연: 배를 타고 가면서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던져 준 적이 있어. 사람처럼 과자를 좋아하는 갈매기들이 무척 신기했어.

()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지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나요.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날아서 훨훨, 헤엄치며 첨병첨병.

그렇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나) “벌써 아침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 못 하게 돼!”

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멧쟁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멧쟁이는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그만 날이 밝은 줄도 모른 거예요.

멧쟁이는 이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다) “여긴 돌아가신 웅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우리 마을이야.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 벌써 잊어버렸어?”

모두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장승 친구들은 밤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라) 장승 친구들은 웅기랑 멧쟁이를 신고 가는 도둑들을 놀래 주기로 했어요.

크아악!

가르르륵

“으악, 도깨비다!”

도둑들은 도깨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너무 놀라 도망쳤어요.

중요

16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멧쟁이 장승은 아침이 된 것을 몰랐다.
- ② 장승 친구들은 착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 ③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났다.
- ④ 아침이 되자 장승 친구들은 정신없이 달렸다.
- ⑤ 멧쟁이 장승은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17 물장구치는 모습을 흉내 내는 말을 글 (가)에서 찾아 쓰시오.

()

18 글 (라)를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장면
- ② 장승 친구들이 헤엄치는 장면
- ③ 도둑들이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
- ④ 장승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
- ⑤ 멧쟁이 장승이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장면

서술형

19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보기처럼 쓰시오.

보기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도움말 재미있었던 장면이나 궁금한 점, 깨달은 점 등을 떠올려 봅니다.

20 다음 시의 빈칸에 들어갈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풀숲에서 /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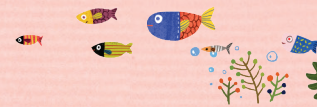
숨털같이 [가]한

꼬리를 [나]

- | | |
|-----------|---------|
| ① 가: 복슬복슬 | ㉔: 살랑살랑 |
| ② 가: 살랑살랑 | ㉔: 복슬복슬 |
| ③ 가: 보송보송 | ㉔: 울룩볼룩 |
| ④ 가: 울룩볼룩 | ㉔: 휘청휘청 |
| ⑤ 가: 야들야들 | ㉔: 말랑말랑 |



쉬어가기



꼭꼭 숨어라, 숨은 그림 찾기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 친구와 새 담임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친구들의 모습이네요.

어떤 그림이 꼭꼭 숨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음'으로 '이'로 '리'로 '미'로 '스'로 '음'으로 '로'로 '림'으로 '교'로 '실'로 '교'로 '실'로